

광주 軍 공항 이전 ‘무안’ 의회서 반대... 후보지 난항

무안군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연말까지 예비후보지 선정 무리
광주시, 국방부·주민 협의할 것



광주도심 하늘 나는 전투기.

/연합뉴스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나 연말까지 이전 후보지(예비)를 선정하려던 국방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무안군의 의회가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추천된 전남 4개 군을 대상으로 작전성, 적합성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최근 국방부는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추천한 영암, 무

안, 신안, 해남 등 4개 군 가운데 2개 군과 집중적인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안군의회가 전남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새로운 장벽에 직면했다.

무안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 규모와 대책 등에 대한 설

명 없이 사업의 당위성 위주로만 홍보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개략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책무성이 결여된 졸속 추진일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예정부지가 229km의 해안선과 해양관광자원의 중심부에 있고 다도해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역이며 무안국제공항·고속철도(KTX)역세권 개발

사업·항공특화산업단지 인근으로, 군 공항이 이전된다면 군의 발전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안군의회는 “무안공항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광주 군 공항의 무안군 이전을 결사반대한다”며 “특정 지역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만을 위해 발의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무안군의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최근 국방부가 협의에 나서면서 무안군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 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된다.

군 공항 이전 대상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의회가 반대에 앞장서면서 지역

주민의 여론도 급격하게 반대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작전성 검토 등을 추진 중인 국방부가 연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고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광주시가 총 5조7천480억원을 들여 15.3㎢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8.2㎢의 종전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양여’ 방식의 사업이다.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면 주민지원 사업으로 4천500억여원을 투입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국방부와 접촉이 이뤄지면서 후보지 선정에 대한 우려로 결의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개항 이후 ‘인천 도시공간의 변화’ 알린다

인천시 시립박물관은 송도동에 위치한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오는 24일 토요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체험 교육프로그램 ‘인천 도시 탐구생활’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 도시 탐구생활’은 학기 중인 4~6월, 9~11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운영된다.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전시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8년 인천 도시 탐구생활의 주제는 ‘개항 이후 인천 도시 공간의 변화’로 근대 문물을 접하게 된 도시 인천의 변화 및

근대 도시로의 발전 이면에 담긴 인천 모습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으로 운영되며 저학년생은 ‘내가 만드는 그림책’, 고학년생은 ‘내가 그리는 만화’를 주제로 전시 관람 및 팝업북 만들기, 조별 5컷 만화 그리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배성수 인천도시역사관장은 “이번 주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개항 이후 도시 인천의 변화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유천·송탄 취수장, ‘39년 체증’ 실마리 찾는다

경기도, 상수원 보호규제 해소 검토
안성·용인·평택시 정책협력관 파견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소를 위한 ‘경기도 상생 협력 및 수질개선 용역 착수 보고회’가 이르면 올해 안에 열릴 전망이다.

경기도는 평택호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개선 종합 대책 용역비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해 지난 10월 용역을 발주했다.

도는 또 상수원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수자원본부에 상생협력추진단을 정식기구로 발족해, 안성, 용인, 평택시의 정책협력관(사무관급)이 올해 3월부터 파견 근무 중이다.

안성시는 지난 39년 동안, 평택시민의 상수원 공급을 위한 유천·송탄 취수장 관련 규제에 묶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도시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규제로 묶인 대부분의 지역은 공도읍,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안성 2동 등 개발이 용이한 서부권역으로 여의도 면적의 총 30배(89.07㎢)에 달하며, 이는 안성시 전체 면적의 12%



유천·송탄 취수장 전경.

수준이다.

특히,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가 약 2.6%인데 반해, 안성은 약 97.4%에 달해,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안성시는 이번 용역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중요 쟁점마다 경기도를 비롯한 3개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거치며, 민간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석토록 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간대표 추천에 앞서 안성시는 사전에 규제지역 마을 대표와 면담을 통해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등, 규제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 왔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경기도에 적극 협력은 물론,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유사사례도 검토해, 용인시, 천안시 등과의 현실적 업무 협의와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한 새로운 상생협력을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지난 10월 19일 안성시청에서 열린 ‘민선 7기 비전 및 공약 사업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유천·송탄 취수원 상수도 보호 구역 규제 해소를 우석제 안성시장의 5개 핵심공약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지정한다.

/경기 안성=이보현 기자 bhlee7777@

장흥군 자살예방 ‘생명사랑 실천가게’ 현판식

장흥군은 지역 내 번개탄 판매점 8곳을 ‘자살예방 생명사랑 실천가게’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생명사랑 실천가게’로 지정된 곳은 번개탄을 가급적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판매시 용도를 묻기로 했다.

자칫 자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번개탄의 접근성을 낮춰 자살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비롯 되었으며, 참여 업체들은 “뜻 깊은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참여의지를 내비쳤다.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위의 작은 관심



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장흥군 만들기에 첫 단추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흥=위지훈 기자 jh2255@

부천 메이커스페이스 제조·디자인 등 ‘메이커 창업스쿨’ 교육생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부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제조, 콘텐츠 융복합, 디자인, 제품개발 분야의 예비창업자 교육프로그램인 ‘메이커 창업스쿨’을 운영한다.

메이커스(Makers)는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획부터 제작까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1인 제조기업’을 말한다.

‘부천 메이커스페이스’는 도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지난 7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3D 프린터, CNC조각기, 레이저 가공기 등 17종의 메이커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생, 예비창업자, 창업초기단계 기업 등에게 다양한 메이커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메이커 창업스쿨은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나만의 지식재산권 확보하기 ▲시제품 개발 전략 ▲정부지원 창업제도의 이해와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발표 능력 함양 및 모의심사 등 총 6회의 단계별 수업으로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주간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전체 과정의 80% 이상 교육 수료자는 지식재산권, 시제품제작, 사업계획서, 창업자금 분야 전문가와 1:1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부천 메이커스페이스 내부전경 /경기도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8 | 해질 / 17:18

11월

21일(수)

음력 : 10월 14일

수도권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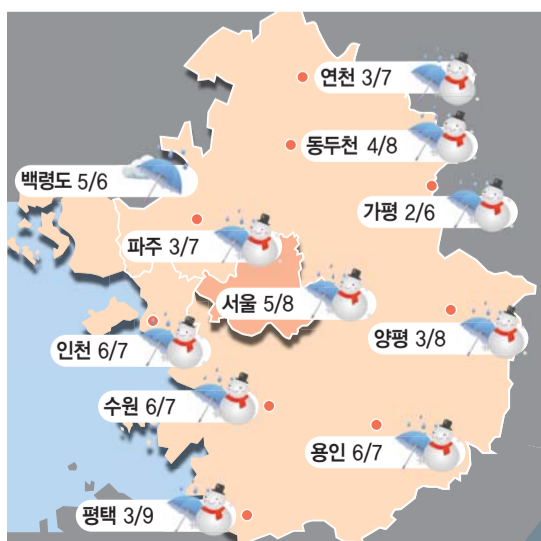
5~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